확 뒤집혀버린 73년의 인생 에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례·김유라
‘처음’이 주는 설렘·애정 담아내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이 71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전직한 박막례와 오로지 할머니의 행복을 외치는 PD 손녀 김유라의 에세이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가 출간됐다.

1947년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이름도 막례가 된 할머니는 여자라는 이유로 글도 못 배우고 집안일을 다 해치우는 일꾼으로 살았다. 스무 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만 해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했다.

막일부터 시작해 과일장사, 엿장사, 꽃장사, 파출부, 식당 일 등을 전전했으나 두 번의 사기를 당하게 되고 작은 식당을 열어 4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다.

눈앞에 닥친 생계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니 나이는 어느덧 70살이 돼 있었고, 병원에서 치매 위험 진단을 받았다. 언니들이 차례로 치매에 걸렸기에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 소식을 들은 장손녀 김유라는 할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호주 여행을 계획한다. 그렇게 떠난 호주 여행이 박막례 할머니 인생의 후반전 시작이 됐다.

이 여행에서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쓰며, 화장이 진하든 민소매 원피스를 입든 말든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토마토나 무만 보아도 우리나라 것과 다른 점들을 자세하게 기억했고, 처음 먹는 음식의 맛도 세심하게 구별했다. 그런 할머니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많으니 세상에 무뎌졌을 거라는 생각은 단단히 틀렸다. ‘처음’이 주는 설렘을 흠뻑 느끼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동안 매사에 심드렁했던 자신을 새삼 반성하게된다.

여행 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올린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다. 손녀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재미 삼아 뷰티 영상을 찍게 된다. 그때부터 유튜버 박막례의 인생이 시작된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된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기운을 뿜어냈다. 돗토리현 모래사구에서 보드를 탔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매일 밤 춤을 추었다. 처음 가본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게트를 먹다 이가 빠져도 깔깔 웃었고, 옷장 속에만 고이 모셔뒀던 예쁜 원피스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내 인생이 부침개처럼 확 뒤집혀버렸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 책은 할머니 박막례의 73년 인생 도전기가 가슴 뭉클하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손녀 김유라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관찰한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매일이 도전이고 호기심이 넘치며, 어딜 가도 멀미 한번 안 하는 할머니에게 한국은 너무 좁았다. 새로운 것이라면 눈을 반짝이며 배우고 싶어하는 할머니는 사실 못 배운 한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할머니가 살아온 삶이 증명하듯 인생은 끝까지 모를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찌감치 끝났다고 포기를 외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삶이 아직 많다.

위즈덤하우스. 344쪽. 1만4,800원.

/이보람 기자

70살이 되고서야
캥고리도 처음 보고
헬맷 쓰고 바다 속에도 막 들어갔다

오늘도 사회성 버튼을 누르는 당신에게

타인을 살피는 내향인의 내밀한 행복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외향성은 적극성·주도성·사회성·자신감 등 긍정적 성격으로 인식되는 반면, 내향성은 소극성(적극적이지 못함)·소심함(주도적이지 못함)·비사회성(사회적이지 못함)·열등감(자신 없음)과 같은 부정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바깥세상에서 능숙한 사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회성 버튼을 누른 채 내향적 본성을 감추고 외향인인 척 생활한다.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의 저자 남인숙은 내향인이어서 일굴 수 있는 내밀한 행복에 주목하며 내향성은 결코 교정해야 할 성향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저 담백하게 분류한 성향의 하나일 뿐, 외향성처럼 타고난 대로 살아도 괜찮은 성향임을 이야기한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내향인은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전파까지 다 감지해 감응하느라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의 중심에서 곧잘 밀려난다. 세상에 능숙하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눅들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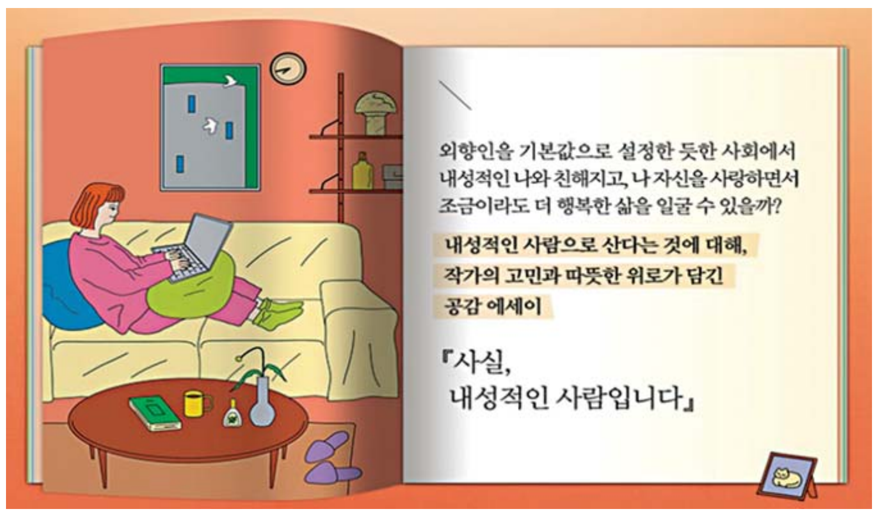
‘사회성 버튼’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이어야 할 상황에서 누르는 의식 속의 ‘외향성 ON’ 버튼이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향인의 에너지는 빠르게 방전되지만, 이는 내향인이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마련한 최선의 자구책이다. 그러나 내향인에게 이 버튼을 누르는 일은 내향성을 극복하고 외향인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다. 외향적인 태도가 대체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확률이 높으므로 몸에 익혀두는 예의와 배려이다. 더욱이 필요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른 채 아주 약간의 용기를 짜내어 딱 한 걸음만 타고난 본성 밖으로 내딛으면 새로운 경험의 세계가 보이고 그 보상도 몇 배로 돌아온다.

알고 보면 사회화 부담은 내향인만 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사회’와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 때문에 사회화가 필요한 것은 외향인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사회에서 환영받으려면 타인과의 적정 거리, 즉 남들이 필요 이상의 간섭으로 여기는 저지선을 지켜야 하는데,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살펴 그 선의 위치를 직감하는 내향인에 비해 외향인은 둔감해 무례한 사람으로 배척되기 쉬운 탓이다. 그래서 내향인의 사회화는 굳게 닫힌 문의 빗장을 푸는 방향으로, 외향인의 사회화는 활짝 열린 문에 빗장을 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내향인은 외향인을, 외향인은 내향인을 닮아가는 과정이 사회화인 것이다.

저자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극단적으로 주저앉는 것은 어른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고통에 예민한 대신 행복을 느끼는 데도 훨씬 유리한 성향의 내향인들이 ‘나’와 ‘세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횡단하며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

21세기북스. 212쪽. 1만4,300원.

/이보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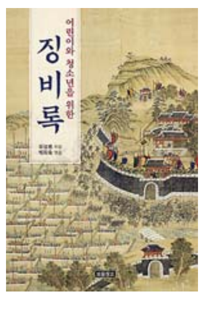
새책 나왔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할 수 있는 100가지 강력한 한 마디를 담고 있다.

라이스메이커. 232쪽. 1만3,5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징비록=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참상에 대해 기록했다. 방대한 분량의 원본 ‘징비록’을 읽기 쉽고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보물창고. 176쪽. 1만1,800원.



◇눈물은 하트 모양=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성격의 여자 ‘소주’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끌려들어 가버리는 남자 ‘상식’의 사랑을 시종 발랄한 문체로 전한다.

꼼지락. 124쪽. 9,800원.

◇이제, 당신이 떠날 차례=15년 지기 친구와 네 차례에 걸쳐 쌓아 온 세계 여행기이자, 반복되는 일상과 비슷한 사이클에 의해 취업, 연애, 결혼으로 이어지는 30대 보통여자의 평범한 삶에 대한 기록이다.

책밥. 224쪽. 1만4,000원.

◇심장이 소금 뿌린 것처럼 아플 때=저자 도리스 볼프는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내담자들의 다양한 고백 및 치유 사례를 통해 가족, 부부, 친구 등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분석한다.

생각의날개. 260쪽. 1만5,000원.

/이보람 기자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목포(갑)	010-3272-2765
목포(을)	010-3635-6777
목포(병)	010-9359-1648
여수지사	010-8648-1236
순천지사	010-2547-7890
나주(갑)	010-6401-9370
나주(을)	010-3713-7458
광양지사	010-2630-1628

담양지사	010-4154-8277
곡성지사	010-6764-6100
구례지사	010-5431-4006
고흥지사	010-9151-2828
보성지사	010-5259-6441
화순지사	010-3666-5888
장흥지사	010-3613-6114
강진지사	010-6646-1241
해남지사	010-8181-2627

영암지사	010-4624-8409
무안지사	010-3621-8989
함평지사	010-3773-2522
영광지사	010-8666-2882
장성지사	010-3666-1300
완도지사	010-5619-7020
진도지사	010-3624-4777
신안지사	010-4627-1472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